

“함께하는 농업 · 활기찬 지역경제 · 품격있는 교육 역점

지난해 임실군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 지난 2년6개월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有志竟成(유지경성)의 옛말처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2만 명이 물린 '제2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치즈산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인접 자치단체와 엉켰던 실타래를 풀어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2년 연속 3천5백억 원의 예산을 달성해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본보는 심민 임실군수를 찾아 올해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임실군의 대표 자연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을 활용한 물을 테마로 기존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 활용하고, 생태·문화·관광자원 간의 연계 강화하여 환경교육과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특구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옥정호권역 관광특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에 2020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해 에코누리랜드,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 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립공원 1호 추진계획은?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가 전해지고 구룡쟁주의 모습이 서려있는 상이암과 성수산 편백숲, 자연휴양림을 거점으로 '제1호 군립공원'을 지정해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성수산 군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시작해 현황조사 및 분석, 공원계획안 등을 마련해 성수산 휴양개발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 임실군민의 복지증진 방안은?
군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인가가 많은 지역특성에 맞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1~3급 장애인에게 복지교통카드를 교부하고, 오지마을 및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부담 감소 및 요금 감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여 5개 기관 25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특히 한여름 무더위 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30억 원을 투자해 경로당 냉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군민에 당부 말씀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열정을 가지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 민음이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해라고 합니다. 민선6기 그동안 뿌리고 가꾸은 씨앗을 이제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 6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계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임실군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진홍영 기자

▲ 2017년 군정 추진 방침은?
임실군은 민선6기 뿌린 씨앗을 거두어 군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임실'을 보다 가치화하고,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연속 3,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품격 있는 교육·문화의 4개 군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을 도심권 개발, 옥정호 수변 생태관광개발, 임실치즈 세계화, 성수산 산림휴양개발, 임실형 농식품 6차산업화 등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실현을 위한 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민선6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역점 추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펼치는 겁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농자재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FTA체결 등은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지원 · 지역농산물 소비 시스템 구축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1~3급 장애인에 복지교통카드 교부

군은 희망농업을 펼치기 위해 최근 3년간 해당품목의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을 18년까지 80억 원을 조성해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지원, 고추생산 장려금을 등을 지원하고, 임실 고추를 중심으로 양파, 마늘, 부추 등 채소를 가공하는 양념식품 브랜드화를 위해 '임실N양념산업'에 20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은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 추진하며 인력난 해소에 앞장 선 '임실남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비롯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농작업 대행 사업단'을 운영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돈 버는 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6차 산업과 체험관광,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돈이 도는 임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임실치즈를 세계화해야 합니다.

'임실치즈 세계화'를 위해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및 확산을 통한 토탈관광 기반 구축에 나서며 오는 2019년까지 59억 원을 투입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문화 이벤트, 체험장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임실N치즈'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체험 관광기반 확대를 위해 '임실치즈테마공원'과 '임실N치즈 6차 산업지구' 조성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돈이 도는 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액 316억 원이 투자된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기 완공하여 우량 건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규유입을 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하고, 노후농

공단지사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을 경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임실군은 차세대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갖춘 봉황인재학당에 45억 원을 투자 건립해 15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임실고 기숙형 고교와 연계해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40억 원을 투자해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무상급식,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덕진장학금과 애향장학금을 운영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옥정호 개발 계획은?